

서울시설공, 2020 AFC 축구경기 연기 요청

따릉이·월드컵 경기장도 '신종 코로나' 비상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방역·대시민 PR 강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 주요 투자·출연기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설공단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따릉이,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애인플렉스 등 시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 안전을 고려해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FC서울과 중국 베이징귀안의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 연기를 주회

측에 요청했다. 또 이달 서울어린이대공원 및 청계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시민 체험 행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내에 배치되는 모든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손잡이 및 단말기 액정화면을 친환경 스프레이로 소독하고, 1540여곳 따릉이 대여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등 체육시설에는 접점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입장객을 확인하고 있다.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동을 운영 중인 서울의료원도 비상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 이동경로, 증상 여부 확인하는 한편, 음압격

리병동의 안정성을 알리고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가락·강서·양곡도매시장과 서울진화경유동센터를 관리하는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는 각 도매시장에 중사하는 유통인 및 입주자에게 감염예방 수칙,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하역원, 청소원 등에게는 마스크(2만5000매)와 손세정제(1600개)를 지급한다.

또 승강기, 가락물 전체 등 다중이용 시설과 재활용품 적환장은 방역을 주 1회에서 1일 1회, 경매장은 월 2회에서 주 1회로 강화했다. 도매시장 내 밀폐시설은 공조기 가동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렸다.

서울문화재단은 각종 예술센터 및 극장 등 19개 운영시설 모두에 방역물품을 비치했다고, 3곳에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따릉이를 소독하고 있다.

열화상감지기를 설치했다. 아직 열화상감지기가 없는 공간은 수량이 확보 되는대로 설치할 예정이다.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했고, 가족이용객이 집중되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와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등은 주말에 휴관한다.

뉴스1



자가격리자 지원 서울 송파구 한 주민지원센터에서 송파구 대책반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자에게 전달할 지원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해경 퇴역 경비함정, 유명 관광지 갈라파고스 해역 지키다

오는 3~5월 무상양여...“국위선양 도움될 것”

우리 해경에서 퇴역한 경비함정이 이르면 오는 3월 세계적인 관광지 갈라파고스 해역을 지키는데 투입된다.

해양경찰청은 1989년 취역한 300톤급 퇴역 경비함정 2척을 남미 에콰도르에 무상 양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에콰도르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해 5월7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조현배 해경청장 등 한국 방문단과 '해상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우리 해경의 퇴역 경비함정을 양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갈라파고스 해역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양여는 개정된 관련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4일 이후부터 5월 사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 전 관련법은 해경의 퇴역 경비함정에 대해 무상 양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해체 조건'으로만 매각하도록 했다. '고물'로만 팔도록 한 것인데, 300톤급 1척의 매각가는 2000만~3000만원 정도다.

해경은 에콰도르에 퇴역 경비함정이 양여될 경우 경제적 손실보다는 국위선양의 이익이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300톤급 퇴역 경비함정 매각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세계적인 관광지를 지키는데 활용된다면 우리나라와 해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또 에콰도르 과야킬항 리모델링 및 해경 전용부두 건설에 한국 조선업체 참여가 예정돼 있는 등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뉴스1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출시 40일만에 충전금액 300억원 돌파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이 충전금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시는 동백전 출시 40일 만인 6일 충전금액이 총 300억원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동백전은

일 평균 가입자 수 3000여명, 일평균 충전금액은 7억~8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2월 들어 10% 캐시백 지급이 연장되면서 일 평균 가입자 수는 2배, 일 충전금액도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월들어 일 평균 가입자 수는 7000명, 일 충전금액은 18억~20억원에 기록됐다.

시는 지난 3월 동백전에 자동충전 기능을 도입했다. 오는 17일부터는 고령층의 편의를 위해 부산 지역 부산은행 전 지점에 영업시간 내 본인 신분증과 동백전 카드를 가지고 가면 충전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동백전 카드는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현재 하나은행, 부산은행 창구에서도 회원가입과 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 출신 배우 이시언을 모델로 하는 동백전 광고를 지상파 3사 TV, 유튜브, 지하철 안내방송, 가로등 배너 등을 통해 적극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동백전이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성남시, 신종 코로나수출입 피해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지원

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에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제조업체, 지역 전략산업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대상을 '감염증 사태'로 수출입 피해를 본 기업으로 확대했다.

육성자금은 협약은행의 협조 용도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중 2%는 성남시가 지원한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기업은 최대 3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성남시가 추천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시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방

안을 확대 마련하기 위해 감염증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성남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기업 관련 6개 기관과 합동으로 기업 상황 점검반도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수출입에 애로를 겪는 기업은 성남시청 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원 기업 SOS지원단,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성남시 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중국 수출 비중은 26%, 수입은 27.2%로 무역 비중이 크다"면서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도록 정부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해결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시과 홍보송 유튜브서 인기

충주시 농산물 홍보 캐릭터 '충주씨' B급 감성 폭발

충북 충주시 농산물 홍보 캐릭터 '충주씨'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나섰는데 인기가 많다.

충주시는 지난해 12월24일 개설한 관련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넘겼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채널은 그동안 충주시 공무원 면접, 수달 공무원 충주씨 자축댄스, 노동요 '일할 땀 사과송' 등 20여 개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충주시과 홍보송 '사과하심소' 뮤직비디오 1·2탄은 등록 1개월 만에 조회수 2만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사과홍보송은 '사과'의 중의적 표현을 이용해 만든 재미있는 곡이다.

서로의 잘못을 정중하게 사과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노래는 힙합곡으로 반복하는 가사와 리듬이 중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달을 형상화한 캐릭터 충주씨가 '사과하심소', '사과하심소'를 반복하는 데 1번만 들어도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전달력이 높다.

댓글로는 "와, 이 중독성 무엇... 구독 놀라버렸...", "오늘도 마약 재배 중인 충주시", "아무 생각 없이 놀렀다 터짐" 등의 반응이 나왔



다. 충주시는 B급 감성이 물씬 풍기는 홍보 포스터 제작 등으로 이미 시청홍보의 1인자로 자리잡고 있다.

충주씨는 홍보실이 아니라 농정과에서 기획하고 만든 캐릭터다.

지난해 7월 지역에서 발견한 천연기념물 수달을 모티브로 탄생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임명받은 충주씨는 실제 충주시청 7층 사무실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주씨는 농산물 홍보는 물론 충주가 가진 다양한 삶의 모습을 직접 찾아가 보여줄 예정이다.

농정과 신동규 유통팀장은 "사실 EBS 팽수가 나오기 전부터 준 수달을 정도로 전달력이 높다. 댓글로는 '와, 이 중독성 무엇... 구독 놀라버렸...', '오늘도 마약 재배 중인 충주시', '아무 생각 없이 놀렀다 터짐' 등의 반응이 나왔

뉴스1

강릉시의회, KTX 감축 계획 철회 촉구

강원 강릉시의회가 7일 강릉선 KTX 동해역 연장 운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강릉역 감차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자로 나선 윤희주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코레일은 강릉시와 어떤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의 발목을 잡는 강릉선 KTX 감차 계획을 추진했다"며 "이는 동해 연결선의 개통을 환영하는 강릉시민의 뜨거운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강릉선 KTX는 개통 2년 만에 이용객 1000만명을 돌파했고 80%가 수도권 관광객인데도 하루 평균 1만3000명이 이용하는 등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KTX 개통으로 강릉관광의 지형이 바뀌는 시점에 코레일의 감차 계획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강릉시는 근래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며 강릉선 KTX의 활성화가 증폭될만한 계기가 마련됐음에도 감차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조치"라며 "KTX가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행 횟수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릉시의원 모두는 22만 시민과 함께 동해역 KTX 운행과 별도로 감차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회의원에 강릉역 운행 축소는 남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코레일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창군·문화재단, 문화도시 조성 위해 지역기관·단체 협력

전북 고창군과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사장 유기상 군수)이 '한국의 세계유산 대표 문화도시, 고창'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군과 재단은 5~6일 이틀간 고창 문화의전당 회의실에서 고창군 13개 행정팀과 32개의 민간단체와 문화예술인이 참여한 '문화도시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화예술정책, 문화유산활용, 도시경관문화, 생태환경관광 4개 분과로 나눠 문화예술관광 단체와 기관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법정문화도시 지정 관련 참여와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은미 재단 문화살림장은 "고창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 문화재단은 소위원회 참여 주체들과 함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 주요 권역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간담회를 개최, 지역민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교육감 참여 '졸업축하' 영상 제작

울산교육청은 올해는 노숙의 교육감이 졸업식을 맞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대신 영상으로 축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대부분의 졸업식이 교실에서 치러지고, 외부행사 초청도 제한하고 있는 데 따른 대안이다.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축하 영상이 아닌 학생들의 감성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진 영상은 희망하는 학교에 배포된다.

축하영상은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